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8(日)
호리고비 21 / 27℃	호린후견 21 / 28℃

News

- '내신 갈등' 재연 되나 ②
- 대학 불법주차 골머리 ④
- 폴란드 넘어 16강 간다 ⑩



Entertainment

- 사극무대 조선시대로 ⑧
- 눈길 끄는 '티저 포스터' ⑨

Wellbeing

- 바다의 인삼 '해삼' ⑬



유형별 대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nsc.ac.kr

'국립남도국악원' 중남미 돌며 여수엑스포 홍보



국립남도국악원 해외순회공연단이 지난달 3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퀸스홀(Queen's Hall)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남도국악원 제공)

한달간 싹틈없는 '국악 릴레이' '엑스포 열정' 중남미에 새기다

“공연단 모두의 가슴에 2012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열정이 넘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여수엑스포를 반드시 개최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달여 간의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7개국을 순회하며 여수엑스포 유치 홍보공연을 펼치고 최근 귀국한 국립남도국악원(진도군 일회면 상만리 소재) 해외순회공연단원들의 얼굴은 환했다. 딱 짜인 일정과 하루 종일 걸린 긴 비행 시간, 귀국 후 시차 부작용 등 때문에 있을법한 피로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던 열정이 아직도 가슴에 남은 까닭이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난 것은 지난 5월 29일. 피리·대금·아쟁 등 기악, 타악, 사물, 무용, 소리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해외공연단은 미국 뉴욕을 거쳐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30일(현지 시간) 오후 첫 공연과 함께 한달여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공연단은 이어 트리니다드토바

Korea displays folk art in the Caribbean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hich is a leading provider of folk arts, and a group of folk arts was invited to perform in the Caribbean. The group of folk arts was invited to perform in the Caribbean. The group of folk arts was invited to perform in the Caribbean.



가이아나에서의 공연을 소개한 현지 신문기사.

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수리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그레나다 등 카리브해 연안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3박4일씩 돌면서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현지인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 내용은 사물놀이, 대금독주 '청성곡', 기악합주 '시나위', 무용 '살풀이',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사랑가', 무용 '소고춤', 민요 '아리랑 연곡', 사물놀이 '관굿' 등. 공연단은 또 람바다풍의 방문국 전통 민요를 연주, 뜨거운 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 순회공연은 카리브해 연안국을 총괄하는 신승철 주베네수엘라 대사 여수엑스포 유치 홍보에 큰 힘이 됐으며 현지에서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바람

에 실려 여수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연장에는 또 각국의 수상이나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가 찾아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등 엑스포 개최 희망을 밝게 했다.

이번 해외공연단을 이끌었던 정성열 장악과장은 “한국과 직통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류가 많지 않았던 이들 국가에서 여수 박람회 개최 당위성 등을 홍보해 지지확산 등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여수엑스포 홍보에 일조한다는 자긍심이 순회 공연 내내 단원들의 가슴에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올 내신 30%이상 반영하라”

금부총리 가이드라인 제시...대학들 “당황스럽다”

靑 “본고사 부활 반대”...내신 갈등 재연 우려

교육부는 올해(2008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 수준에서 출발해 향후 3~4년 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50%)를 달성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내신 갈등' 사태에 따른 대국민 사과의 뜻과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내신 반영비율을 올해에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요강은 앞당겨 발표하되 아무리 늦어도 8월말은 넘기지 말아

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별 입학 요강이 전형일보다 적어도 1년 이상 이전에 확정 발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 문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제재를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최대한 반영비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지만 30%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숙명여대 박천일 입학처장은 "정부가 자주 확실적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을 참고해서 실질반영률을 15~20% 수준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30%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대학의 고유 임무인 입시전형에 관한 관료적 간섭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비율은 자율에 맡겨져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탈헌법적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이날 "대학들은 입시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이자 선발 방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만일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이란 글에서 대학측의 학생선발권 보장 요구에 대해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중·고교 교육의 기초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평창 아쉬움 접고 여수엑스포 총력”

강무현 해양 밝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깝게 실패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 평창의 아쉬움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해양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최 능력이나 주제의 시의성 등의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하반기에 정부와 민간이 모두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부분파업 계속

현대차는 금속노조 총파업 지시 거부

기아차 노조가 4~5일 본교섭 결렬을 이유로 6일 8시간 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다음주에도 부분파업을 계속하기로 해 지역민들의 민혹을 사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광주공장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소하라, 화성공장 등에서 8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2시 소하라 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일, 11일, 13일에도 주·야간 4시간씩 하루 8시간 부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다음주 부분파업과 함께 9일, 12일에 사측과 제5·6차 임금협상 분협상을 갖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으로 기본급 12만8천805원(8.9%) 인상, 성과급 삭감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분(통

상임급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아직 임금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노조측이 수정안 제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타결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지속적으로 노조와 의견 조율을 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측은 울며 6일 현재까지 노조파업 등 총 6일간의 작업 차질로 2천7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422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6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계획중인 총파업 일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써 청력 향상시켜드립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par.co.kr

1588-8499 | 080-222-0100